

전북도 해양수산 2035년 비전 수립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3개 목표에 1조5501억 투자 로드맵 제시

전북도는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유관 기관,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내외 해양수산 여건 변화 및 전망을 통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 분야가 나아갈 비전으로

‘바다의 힘, 큰 전북’으로 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35년까지 3개의 세부목표 18개의 주요과제 및 63개의 세부사업에 총 1조 5501억원을 투자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3개 목표는 상생하는 창조적 바다,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 삶이 있는 소통의 바다이다.

첫번째 목표인 상생하는 창조적 바다는 미래성장엔진 해양신산업 조성

및 휴먼웨어 투자와 활용을 통한 공간과 자원의 융·복합 기반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을 위해 6개의 주요과제 및 17개의 세부사업에 3,724억원을 투자한다. 두번째 목표인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는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환경 조성 및 안심·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이라는 추진전략을 위해 6개의 주요과제 및 19개의 세부사업에 3,969억원을 투자한다.

마지막 목표인 삶이 있는 소통의 바다는 맛과 멋이 있는 연안 만들기 및 살고 가고 싶은 여촌 만들기라는 추진전략을 위해 6개의 주요과제 및 27개의 세부사업에 7,808억원을 투자

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핵심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굴된 통합적 스마트 바다목장 조성 등 30개의 사업은 향후 사업구체화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전라북도 해양수산 분야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용역)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과 국가시책사업 발굴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교육청 2차 추경액 3조1800억원

1회 예산액 比 960억원 증액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6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2회 추경액은 1회 추경 예산액 3조 840억 원에서 960억원(3.1%)이 증액된 3조 1,800억원이다.

2차 추경 세입예산 960억 원은 중앙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용역)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과 국가시책사업 발굴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학교실 안전장구 및 실험기자재 확보에 69억원, 8개 농산어촌 어울림학교에 61억원, 352개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67억원 등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에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신축과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등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중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신축이 결정되면 오는 2019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군산 학생수영장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학생수영장기교육은 물론이고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공간 활용, 그리고 지역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시설 신축은 학생들의 심신 안정과 실내 훈련이 가능한 체육관을 확보하고 날씨와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장명식 위원장은 “새정부의 국회 추경으로 예산에 없던 960억 원의 2차 추경이 실시돼, 예산의 편성에 남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미래축산 발전방향 ‘머리 맞대’

전북도는 축산업의 미래와 전망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참예우)전주김제완주축협 3층 회의실에서 ‘미래지향적 전북 축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삼라농정 축산포럼을 개최했다.

축산업은 가축질병, 위생안전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와 논쟁거리를 만들어 발전해왔다.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등과 같이 수시로 반복되어 발생하는 질병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살충제 계란과 같은 문제는 건강의 안전을 공격하

며 축산 전체에 대한 신뢰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산업부분에 치중하며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건강안전과 같은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는 ‘전북 축산업의 미래와 전망’이란 주제로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하고 있는 생산, 소비환경, 축종별 산업 현황에 대하여 정리했다.

축산업의 비판적 프레임(환경과, 가축분뇨, 항생제남용, 가축질병)

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산업의 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시스템 개발, 가축의 생산성향상, 축산식품 가공,유통 물류기술 혁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전북축산업이 축산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축산 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대학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허재영 교수는 ‘효율적인 사육관리’에 따른 면역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

삼라농정 축산포럼 개최 축종별 대응 전략 토론 나눈

로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효율적인 사육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업의 비중이 농업 생산액 부분에서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9.1조원의 12.2%(2.3조원)로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의 생산을 바탕으로 도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미래 축산 선도하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농산물 동남아시아 진출 발판 마련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
도내 4업체 · 10품목 참가

전북도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AsiaWorld-Expo) 전시장에서 열리는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Asia Fruit Logistica 2017)’에 총 4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이 며,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홍콩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전북도 신선농산물의 對 홍콩 및 동남아시아 수출 주요품목은 배, 멜론, 사과, 포도 등으로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향후 파프리카, 오이 등 기타 채소류까지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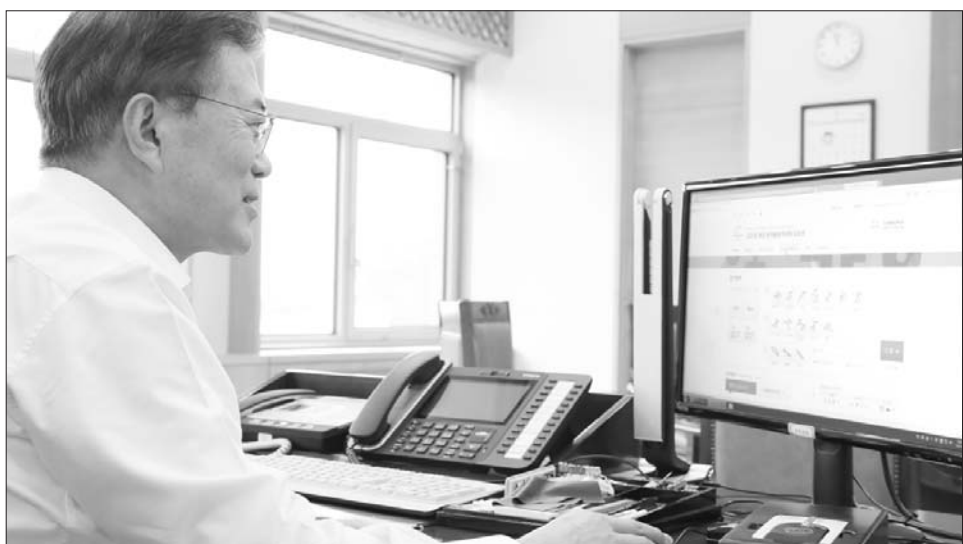
전북 홍보관에는 수출 최대 신선농산물인 파프리카와 장미,토마토 등을 생산 수출하는 (주)로즈피아와 당조고추(완주 농부의꿈), 사과,포도(무주조공), 멜론,고구미(전주 케

복지정책계획 시행결과 평가 전북도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5일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자체의 ‘복지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2016년 복지정책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잘 계획하고 실행하였는지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우수지자체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취약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전화접수를 통해 시장보급 등 각종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바로콜 지원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 운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를 차지했다. /김진성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에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2차 온라인 판매에 참여하여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도 농산물 동남아시아 진출 발판 마련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
도내 4업체 · 10품목 참가

전북도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AsiaWorld-Expo) 전시장에서 열리는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Asia Fruit Logistica 2017)’에 총 4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이 며,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홍콩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전북도 신선농산물의 對 홍콩 및 동남아시아 수출 주요품목은 배, 멜론, 사과, 포도 등으로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향후 파프리카, 오이 등 기타 채소류까지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 홍보관에는 수출 최대 신선농산물인 파프리카와 장미,토마토 등을 생산 수출하는 (주)로즈피아와 당조고추(완주 농부의꿈), 사과,포도(무주조공), 멜론,고구미(전주 케

이아트) 등을 수출하는 도내 4업체(10품목)가 참가한다.

참가 업체들은 박람회에 내방하는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하여 도내 신선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콩과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는 2016년에 37개국 665업체가 참가하고 74개국 11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아시아 유일의 신선농산물 전문 박람회이다. 전북도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계기로 그간 구축된 홍콩 및 동남아시아 바이어 네트워크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신규 전문 바이어 발굴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사드 영향으로 농식품 수출국의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수출 신시장으로 부상하는 홍콩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